

토론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에 대한 연구*

강소영
(이화여대)

<Abstract>

Kang, Soyoung. 2017. **A Study on a intervention in CEDA discussion discourses.** *Korean Semantics*, 58. This study purposed to show that turn taking takes place often at unfavorable-easy points by examining the phenomenon of intervention observed in CEDA discussion discourses. Intervention at unfavorable-easy points was somewhat frequent interventions at a point where the intervention did not affect the present speaker's message such as quotations, wh-clauses, tag questions, predicatives of a 'neun geosida' noun clause and idiomatic expression. Also, unfavorable intervention is showing an unfavorable behavior to the present speaker by cutting in the present speaker's turn and raising a question on or refuting the present speaker's message or changing the topic by presenting another alternative, so listener did use several language strategies at unfavorable points. Especially, interventions at unfavorable-easy point did use a linguistic device for saving the present speaker's positive face, unlike other interventions.

핵심어: 말 끼어들기(intervention), 말 겹침(interruption) CEDA 토론담화(CEDA discussion discourses), 비우호적 용이 지점(a unfavorable-easy point), 인용절(Quotation), 의문사절(Wh-clauses), 명사절(Noun clause), 관용표현(Idiomatic expression), 언어전략(Language Strategy), 공손성(Politeness)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481)

1. 서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말차례교환법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실제 대화 자료를 전사, 분석하여 말차례 구성단위를 연구한 Ford & Thompson(1974)에 따르면 통사적 완결점, 억양단위로 측정되는 억양적 완결점 그리고 행위가 완결되는 화용적 완결점이 함께 일치하는 지점에서 말차례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른바 복합적 추이적정지점(Complex Transition Relevance Places:CTRPs)에서 대다수의 말차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CTRPs가 아닌 지점에서 말차례가 시작되거나 CTRPs를 지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주로 화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호적인(혹은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내리는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토론담화는 각자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내리기 위해 추이적정지점을 위반하여 말차례가 전개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토론담화를 전사, 분석하였을 때 반박, 의의제기 등 비우호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곳에서 CTRPs를 위반하여 말 끼어들기를 시도한 경우를 볼 수 있다.

- (1) 가. 긍정1: 예,
 거래가 서로=
 거래처--
 학교와.(0.1)
- 부정2:①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 긍정1: ② [학교와] 학생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네,
- 나. 긍정2: 순차적인 결과물로서 평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학생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③[동의하십니까/]
- 부정1: ④[지금 말씀하시는 게].

- 어폐가 있는 게 ,
 다. 긍정1: [학생측에],
 학생측에 더--
 학교가,
 만약 더 계속해서,
 ⑤ 지원을 [하면]
 부정2: ⑥ [이득이] 안 된다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은 ‘성적장학금은 정당한가’라는 주제 아래에 성적장학금은 학교와 학생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긍정 측의 논의를 부정 측이 공격하는 장면이다. 논박이 지속되면서 서로 간의 말 겹침이 자주 발생하는데, 현 화자의 말차례인데도 의도적으로 끼어들거나(②, ⑥) 현 화자의 말차례가 끝났다고 보고 말을 시작하여(④) 말 겹침이 일어나고 있다.

상대의 의견에 논박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말 끼어들기를 행하여 말 겹침이 발생하는 것은 토론담화에서는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현 화자의 말차례 중간에 말을 시작하여 말 겹침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환경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상대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고 말을 시작하기도 하지만(1-다), 상대방의 요지, 즉 하려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말을 시작하기(1-가)도 하기 때문이다. 앞 예문 (1-가)에서 ①과②의 겹침이 일어나는 지점은 인용절의 인용동사 부분이며, 인용절의 통사적 구조에 익숙한 청자로서는 인용동사는 굳이 듣지 않아도 예측 가능한 지점, 따라서 잉여적 부분으로 인식 가능하다.

정리하면, 본고는 (1) CEDA 토론담화를 대상으로 말 끼어들기 예들을 모아, 이의 유형을 분류하고 (2)현 화자의 메시지 완결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예들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¹⁾. 화자의 말차례가 완

1) 이를 위해 본고는 억양단위를 기준으로 전사하고 말 겹침이 한 억양단위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억양단위는 화자의 머릿속에 한 번에 떠오른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전사한 것으로, 그 구별은 억양곡선이 달라짐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구나 절 그리고 문

결되기 전에 말을 시작하였으므로 말차례 상으로는 비우호적 행위이지만, 화자의 메시지 완결성으로는 비우호적이지 않은 지점, 그래서 말 끼어들기가 용이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란 가정 아래에서이다. 이를 위해 (3) 말 끼어들기 이후 말차례 잡기의 성공률과 차별화된 담화전략상의 특징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2. 토론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

2.1. 말 끼어들기의 정의와 토론담화에서의 분포 현황

본고는 한 사람이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하여 말 겹침이 발생하는 현상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말 중단시키기(interruption), 말 중복(overlap) 또는 말 끼어들기(interruption) 등으로 불리던 것이다.

말 중단시키기(interruption)와 말의 중복(overlap)은 Sacks et al(1974)에서 나온 것으로, 전자는 남의 발언권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이며 후자는 추이적정 지점을 잘못 예측하여 본의 아니게 동시 발화되는 행위를 이른다. 그러나 이원표(1999)에서 지적하였듯이 똑같은 동시발화인 경우라든 현재 화자가 말을 그만둔 경우는 말 중단시키기로 분류되고, 현재 화자가 말을 이어나가는 경우는 우연적인 중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이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기 다른 용어를 붙이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하여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본고는 이원표(1999) 이래 여러 논문들(임규홍 2001, 박정진 2003, 차지현 2007 등)에서 명명한 말 끼어들기를 사용하려 한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말 끼어들기는 외형적으로 현재 화자의 말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

장 단위로 나눌 때는 잠깐의 휴지(micro-pause)마저 존재하여, 말차례 교대 단위가 단어, 구, 절 등 다양한 통사적 단위로 실현되는 한국어의 특성에 억양단위를 기준으로 한 전사 자료가 연구대상으로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말 끼어들기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살피고 그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말차례 교대의 성공률이 높은지를 살피려 한다. 그리고 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사용상의 특징을 살피,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의 구조상의 특징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토론자료 5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상대방보다 더 많은 발언권을 잡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토론의 진행 과정상, 말 끼어들기가 언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쓰임새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토론은 일상 대화와 달리 말차례 교환 순서가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어 외견상으로는 말 끼어들기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담화유형이다. 그러나 CEDA 토론진행방식은 상호질의나 자유논박 등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자신의 말차례임을 주지시키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나은미, 2011:253), 우호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우호적인 말 끼어들기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²⁾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EDA 토론담화 5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토론담화를 대상으로 한 말 끼어들기 연구는 참여자들 간의 역학관계(박정진 2003, 이은희 2011 등)나 토론의 전략으로 다루어서(송경숙 2000, 박용한 2002 등), 말 끼어들기 지점에서의 문법구조상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다. 더구나 그동안 토론담화 연구는 TV 시사 토론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었다. TV 토론담화는 사회자 위주의 말차례 교환이 자주 벌어져, 수평적 관계에 놓인 토론자들끼리의 말차례 교환, 이른바 대화가 지닌 말차례 교체의 원칙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이은희, 2011:159). 따라서 본고는 사회자는 진행절차에 최소한도로 개입할 뿐, 참여자들끼리의 말차례 교대가 주도적 양상을 띠는 CEDA 토론 자료를 택해, 말 끼어들기 현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택한 5편의 자료 중 두 편은 전국대학생 토론왕 대회(2007년 11월, 주제: 한미 FTA는 한국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와 모 대학 교내 토론대회(2014년 5월, 주제: 성적장학금 정당인가?)를 대상으로 전사한 것이

2) 이는 다음에 제시된 토론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표1>)의 현황과 각주 5)에 기재된 사적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 현황을 비교해 보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며, 세 편은 교양 수업시간(2014년 6월 주제: 정당방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CCTV 설치)에 진행된 토론을 전사한 것이다. 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말 끼어들기의 분포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1> CEDA 토론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

		주제	시간	말차례	말 끼어들기
1	전국	한미 FTA는 성장의 동력인가?	교차상호질문 11:45(m:s)	9	0
			자유반박 14:02(m:s)	24	8
2	교내	성적장학금은 정당인가?	교차상호질문 12:23(m:s)	130	47
			자유반박 29:58(m:s)	62	18
3	수업	정당방위는 정당인가?	교차상호질문 10:5(m:s)	42	5
			자유반박 20:25(m:s)	94	15
4	수업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실효성 있는가?	교차상호질문 09:18(m:s)	32	10
			자유반박 20:12(m:s)	88	12
5	수업	CCTV 설치는 효과적인가?	교차상호질문 9:25(m:s)	42	22
			자유반박 19:05(m:s)	133	48
총합				656	185

CEDA토론은 토론회마다 주어진 시간이나 횟수에서 차이를 갖긴 하지만, 대체로 교차상호질문(Cross-Over Interaction)과 자유논박(rebuttal)이 2차례씩 교대로 이루어진다. 교차상호질문은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서 궁금한 것을 직접 묻는 코너로, 질문자의 주도로 전개된다. 이에 반해 자유반박은 자유롭게 논박을 주고받는 코너로 말차례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분석대상인 5편의 토론담화에서도 2명이 한 팀을 이뤄 교차상호질문과 자유논박에 교대로 참여하였으며, 각 자료별 말 끼어들기를 합한 결과는 전체 말차례 656회 중에서 28.2%를 차지한 185회였다³⁾. Levinson(1983)에서 말차례 중복(overlap)이 5% 이하라고 말한 것이나, 비록 예능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3) CEDA토론은 입론-교차상호질문-자유논박-교차상호질문-자유논박-최종변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입론과 최종변론은 청중을 상대로 한 말하기이므로 말 끼어들기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말차례 역시 1번씩이었다. 따라서 여기 실린 교차상호질문과 자유논박을 전체 말차례의 전부를 놓고 빈도수를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빈도이지만 8.2~12.5%였던 것(김수경, 구수연, 2012:112)과 비교하면, 토론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할 수 있겠다.4)

2.2 말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분포 현황

말 끼어들기는 이원표(1999)처럼 구조적, 해석적 접근법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 유형 분류에 따라 행하려 한다. 이원표(1999)는 고의성과 담화에서의 기능에 따라 청자반응신호, 우발적 말 끼어들기, 우호적 말 끼어들기,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청자반응신호는 청자가 현 화자가 말을 하는 동안 그 말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또는 관여의 표시로서 짧게 보내는 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차지현(2007:23)에서 지적했듯이, 말 겹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는 제외하였다.5)

청자반응신호를 제외한 우발적/의도적 말 끼어들기의 분포현황을 볼 때, 각기 말의 첫마디와 끝마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본고는 말 끼어들기가 발생

4) 사적담화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자가 사적담화 자료 2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토론담화보다는 말 끼어들기의 빈도수가 낮았다.

<표1> 일상대화에서의 말 끼어들기

	자료 1	자료 2
참여자	주 참여자 4명 부 참여자 3명	주 참여자 2명
말차례	954	292
끼어들기	173(18%)	17(5.8%)

본 연구자가 4인의 주 참여자, 3인의 부참여자가 참석한 32분가량의 자료1을 분석해 본 결과, 말 겹침은 173회로 말차례 교환 954회 중 1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화에 잠시 참여한 부 참여자의 등장으로 발생한 말 끼어들기와 다수의 참여자로 인해 소위 지역방송이 자주 발생하여 생겨난 말 끼어들기를 포함한 횡수여서, 주 참여자들끼리의 대화에서는 토론담화보다 말 끼어들기의 횡수가 낮았을 수도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2인의 주 참여자가 참석한 16분가량의 자료2에서는 말 끼어들기가 17회로, 전체 말차례 중 5.8%에 불과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물론 이는 좀 더 많은 사적담화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통계를 낸 후 확정지어 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자료2의 말 끼어들기의 횡수가 현저히 낮았음을 염두에 두면, 토론담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 청자반응신호는 거의 들리지 않는 긍정의 표현(네)에 더해, 고개 끄덕임, 눈빛 등 비언어적 표현마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현장을 녹음, 전사한 자료에서는 '말 끼어들기->말 겹침'의 용례가 자주 보이지 않았다.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려 한다. 그리고 첫마디에서 일어나는 말 끼어들기의 경우는 크게 동시시작과 화자 혹은 청자의 과실로 분류하였다. 6)

(3) 가. 긍정1: 저희생각에는 상해되는 아니고,
[상해치사죄가 된다는 게,

긍정2: [과실치사죄]

긍정1: 저희 쪽 입장인데요.

청중, 참여자들: ①[@@@]

부정2: ② [그 범주 설정은--],

긍정2: ③ [저희가--],

덧붙이자면 ,

저희들 입장은 뭐냐면,

나. 긍정2: 그렇게--

그렇게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허가가,

허가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0.01)

④ 그런 뭐냐--

⑤ [메시지가 망가져 있으면 --]

부정1: ⑥ [허가를 안 받았으면 안내판이] 안 달려 있으면,

다. 긍정2: 소수자에게 몰아준다고 주장하신 거 맞습니까↗

부정1: ⑦ 맞습니다,

⑧ [가능한 학생--]

긍정2: ⑨ [하지만 성적]--

제가 말씀--

제가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3-가)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으며, (3-나)는 CCTV의 설치과정이 합법적이라는 긍정 팀의 주장에 부정 팀이 논박을 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3-다)는 성적장학금이 불공평하다는 부정 팀의 의견에 그나마 공정하다고 맞서는 긍정 팀의 모습을 담은 예이다.

6) 본고에서는 우발적 말 겹침에 동시 시작, 동시 답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화자나 청자의 실수로 말 겹침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 과실을 분류기준으로 넣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추이적 정지점에서의 말 끼어들기인지 아닌지로 나누었던 것(차지현, 2007:25-29)을 참여자들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다.

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설파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대화처럼 말차례가 없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웃음이나 감탄 등 청중의 예기치 않은 반응으로 말차례가 중단(가-①)되고, 이때 현행 화자의 말차례가 잠시 멈추기도 한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꺼낸 부정2와 긍정2는 우연히 말차례가 겹쳤을 뿐(②와 ③),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고는 이를 말차례를 동시에 시작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반해 (3-나), (3-다)는 대화 참여자들의 실수에 의해 끼어들기가 발생한 경우이다. (3-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현재 화자가 말을 멈춰(④) 다른 이의 말 끼어들기가 발생(⑥)한 경우이며, (3-다)는 청자(긍정2)가 현 화자(부정1)의 말이 끝났다고 보고 끼어들었다(⑨) 말 겹침이 발생한 경우이다. 특히 (3-다)는 종결어미가 사용되어(⑦) 긍정2로서는 추이적정지점이라 판단할 여지가 다분한 지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청자의 예측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았을 뿐, 추이적정지점이라고 판단한 청자의 예측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 본고는 이를 과실에 의한 말 끼어들기라 명명하였다.

종결어미의 사용과 관련하여 말 끼어들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화자의 추가어(increment)7) 사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4) 가. 긍정1:① 그런 cctv--
 ② 설치에 반대하십니까↗
 ③ 블랙[박스 설치]를?
 부정2: [그거는 본인]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 긍정1: 공공-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에는,
 ④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⑤ [솔직하게 말해서]
 부정2: ⑥[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4-가)는 긍정1이 정확하지 못한 어휘(①)를 고쳐서 문장이 모두 끝난(②)

7) 이는 나중생각(afterthought, Chafe, 1984), 비정상어순으로 분류되었으나, 화, 청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판단, 추가어(increment)로 부르게 되었다. 김혜연(2003)에서는 동일한 increment를 덧뎃말로 부르기도 한다.

뒤 덧붙인(③) 예이며, (4-나)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평가를 추가어(⑤)로 덧붙인 예이다. 추가어는 앞선 종결어미로 끝난 문장(②, ④) 내에 나왔어야 했으나 무질서하게 나온 긍정1의 말 때문에 뒤에 덧붙은 것으로, 끼어드는 부정2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역시 부정2가 고의적으로 말을 분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과실에 의한 말 끼어들기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살핀 말의 첫마디에서 발생하는 말 끼어들기의 세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말의 첫마디에서의 말 끼어들기 현황

자료	유형	동시	과실		
			화자		청자
			분절	추가어	종결예측 실패
1	FTA	0	0	0	0
2	성적장학금	0	4	0	8
3	정당방위	1	4	0	0
4	의무휴무제	7	0	1	3
5	CCTV	0	7	2	11
		8	15	3	22
	총계	8	18		22

두 번째로 첫마디 이후에 발생하는 말 겹침, 특히 말의 끝머리에서 말 겹침이 발생하는 경우의 세부유형을 보면 우선, 상대방의 발화 환경을 고려한 말 끼어들기와 아무데서나 말 끼어들기를 시도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5) 가. 긍정1: 그것은 뭐,
 감수하고 찌른다,
 ① 이런 고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
 부정2: ② [그니까] 미필적 고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 나. 부정2: 자본축적 기간 동안 임시 책으로 그림,
 대형마트는 계속=
 휴무를 해야 하나요↗
 긍정1: ③ 임시책이 아니고 [1 그걸-- 1]
 부정2: ④ [1임시책이죠 1] [2 그건 2]
 긍정1: ' [2 아니= 2],
 임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5-가)는 정당방위의 허용한도에 대해 논하는 장면이며, (5-나)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형마트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임시방편책인지 논하는 장면이다. 현 화자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 끼어들기를 시도(②,④)하여 고의성이 인정되지만, (가)와 (나)는 현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완결성에서 차이가 난다. ②는 메시지의 완결성에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④는 현 화자의 메시지가 미처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 끼어들기가 일어난 것이다.

①에 담긴 메시지는 ‘그 예는 이런(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다. 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인용절로 충분하며, 말 끼어들기가 이뤄진 주절의 서술어 ‘생각하다’는 누구나 쓰임이 예측되는, 따라서 잉여적인 문장성분일 뿐이다. 결국 부정2의 끼어들기로 인한 말 겹침(②)은 메시지의 완결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 하겠다.

반면에 ④는 잘못된 어휘의 사용을 지적하기 위해 현 화자의 메시지가 완결되었는지에 관심 없이 즉각적으로 반박한 경우이다. 긍정1의 메시지(③)는 ‘현재 마련된 법체계를 임시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므로, ‘다른 어떤 것’을 막아버린 부정2의 말 끼어들기(④)는 현 화자의 메시지에 손상을 가한, 전형적인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5-가)처럼 현행 화자의 발화를 미리 예측하고 메시지의 손상 없이 말 끼어들기를 시도한 경우를 유형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무데서나 즉 불특정 지역에서의 말 끼어들기(5-나) 분포현황과 대조하여, 특정 언어적 환경에서의 말 끼어들기라고 정리하였다.

<표3> 말의 끝머리에서의 말 끼어들기 현황

자료	특징	특정 언어적 환경					불특정
		인용절	서술절	의문문	관용구	부가의문문	
1. FTA		3	0	0	0	0	5
2. 성적장학금		10	3	0	3	0	37
3. 정당방위		6	4	1	0	0	4
4. 의무휴무제		2	2	0	0	0	7
5. CCTV		3	11	5	4	2	25
총계		24	20	6	7	2	78
59							

물론 토론은 현재 화자의 의견에 논박을 가하고 자신의 의견에 우세함을 드러내려는 논쟁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들의 말 끼어들기는 현재 화자에게 우호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나뉠 수 있다.8)

<표4> CEDA 토론담화에서의 우호적/비우호적 말 끼어들기

자료	특징	우호적			비우호적				
		특정		불특정	과실		불특정		
		보충	대답	보충	화자	청자	반박	수정	반박
1. FTA		0	0	0	0	0	3	0	5
2. 성적장학금		0	2	1	4	8	14	1	35
3. 정당방위		1	1	0	4	0	9	1	3
4. 의무휴무제		0	0	0	1	3	4	0	7
5. CCTV		2	2	1	9	11	21	2	22
총계		3	5	2	18	22	51	4	72
10(0.5%)				167(94%)					

본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현행 화자에게 우호적인 행위는 토론담화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10회, 0.5%). 이는 토론담화에서는 일상대

8) 본고는 우발적 말 끼어들기를 동시와 과실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동시는 동시답변이나 동시시작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화자의 말이 끝나고 시작되는 상황이므로 화자에게 우호적인지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따라서 우호적/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의 분포현황에서는 빠진 채 조사되었다.

화에서와 달리 우호적 행위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원표(1999)는 우호적 행위로 (1) 대화의 공동구성, (2) 친밀감 증진, (3) 명료화 요청, (4) 화제전환, (5) 이야기진행을 제시하였으나, 본고는 모두 비우호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원표(1999)는 명료화 요청 중 ‘기관총 질문’이 후속 질문이 앞 질문의 대답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성격을 띠어 결과적으로 우호적인 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

- (6) 가. B: 그렇게 힘만줘서 될 문제가 아닌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① A: [아 그래요? 이게 이게 똑같은 대사라도 이게 두분이 틀립니까?=
 D:=어:: 틀리죠=
 ② A: 똑같은 저쪽에서 정도전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허는 것하고 다르게 헌단 말씀예요?
 D: [아아 다르죠=
 C: =예에 틀리죠
 ③ A: [어떠 어떻게 틀려요, 더 더 크게? 더 더 더 무겁게?
 (이원표 1999:40 재인용)

①은 연기자에 따라 발성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B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A의 질문이 나오는 대목이며, ③은 D와 C에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확인을 시도하는 A의 질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둘 모두 확인질문을 하면서 놀람이나 새로운 인식, 흥미로움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 이원표(1999)는 우호적인 행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발언을 수정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는 행위로 이어져 비우호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9) [는 말걸침 표시이며, =는 곧 이어서 나오는 말임을 표시한다.

- (7) 부정2: [아니, 그것은 거래.]라는 것을 [포함해서=]
 긍정1: [거래라는 의]미를--
 부정2: ① [3입장을 취하셨3]죠↗
 긍정1: [3정의를 줌=3] 입론을 [4통해서-4]

이는 성적장학금은 상거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부정 팀에서 상대방의 장학금을 주는 행위를 ‘거래’ 행위로 몰아가기 위해 2번 이상 확인질문을 하는 과정을 보인 예이다. 부정 팀의 확인질문(①)은 긍정 팀과 청중에게 긍정 팀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각인시키는 행위로, 결국 긍정1이 입론에서 밝힌 자신들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질문해 달라는 재반박(⑤)을 하게 만들었다. (7)은 토론에서의 확인질문이 우호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본고는 이를 비우호적 행위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적대화에서는 친밀감의 증진을 보이는 ‘네’를 (1)상대의 질문에 가급적 빨리 대답을 해주는 경우만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2)대답을 위장하여 말차레를 잡으려는 시도를 보일 경우에는 비우호적인 말 끼어들기로 분류하였다.

- (8) 가. 부정2: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1: [예]
 나. 부정1: 실제로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에게, [공정성이라는 게 저소득층인데--],
 긍정1: [네,
 공정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는 상대방의 질문에 미리 나서서 대답을 하여 우호적인 행위이지만, (8-나)는 부정1의 일부 발언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를 반박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정1의 의도 때문에 비우호적 행위로 다루었다. 이 외에 화제전환이나 이야기 전환은 토론담화에서는 현행 화자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이므로 비우호적 행위로 처리하였다.

본고에서 우호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은 앞선 (8-가)의 ‘네’와 동일 팀원의 수정, 보충 행위¹⁰⁾였다.

- (9) 가. 긍정1: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연장선상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위협을- 위협을 당했을 때,
그러면,
① 당한 가해자 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긍정2: ② [피해자]
긍정1: 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방어를 해야 할까요
- 나. 부정2: 전부다 합법적인-
합법적으로 설치가 돼서 합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긍정1: ③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부정2: ④ [그건]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부정1: ⑤ [그리고] 아까 [계속=]
합법적일 수 없는 예들만--
불법적인 CCTV는 배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설치되는 CCTV에 관해서는 전부다,

(9-가)는 자신의 팀원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①) 이를 수정(②)하기 위해 말 끼어들기를 행한 경우이며, (9-나)는 ‘CCTV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긍정1의 의견(③)에 반박을 하는 부정1, 2의 말 끼어들기 예이다. 특히 (9-나)는 부정2(④)의 의견을 강화하려는 부정1의 말 끼어들기(⑤)가 연이어져, 동일 팀원끼리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우호적인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토론에서의 말 끼어들기는 현행 화자의 말 첫마디에서 이루어지

10) 이는 크게 보면 이원표(1999:37)에서 말한 대화의 공동구성 즉, 대화의 요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첨가, 확인하며 결국 대화를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토 크쇼에서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풀어 다시 말해준다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인지하고 그가 할 말을 미리 꺼내서 대화를 한결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아니다.

기(<표2>, 48회, 25.9%)보다는 화자의 말을 들으면서 말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함(137회, 74%)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현 화자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우호적 행위보다는 현 화자의 논지를 논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표4>, 167회, 60.4%)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 CEDA 토론담화는 말차레를 잡기 위한 참여자 간의 치열한 입씨름의 현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상대화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우호적 말 겹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차지현 2007, 김수경 구수연 2012)과 비교해 보아도 이들 대화의 성격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

3.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의 특징

앞 절에서도 지적했듯이,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에는 현 화자의 메시지 전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점에서의 말 겹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말 끼어들기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말차레 잡기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¹¹⁾ 아래는 (5)를 재인용한 것이다.

- (5) 가. 긍정1: 그것은 뭐,
감수하고 찌른다,
① 이런 고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
부정2: ② [그니까] 미필적 고의
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 부정2: 자본축적 기간 동안 임시 책으로 그럼,
대형마트는 계속=
휴무를 해야 하나요↗

11) 본고는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면서도 말 끼어들기 지점에서의 특징 통사적 환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3페이지 용례(6) 역시 바로 상대방에게 확인 질문을 하는 순간, 즉 겹치는 부분이 화자의 발언에서 잉여적 성분이라는 것이다. (가-①)은 ‘그렇게 힘만 쥐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가 핵심이며 겹치는 부분인 ‘저는 생각이 듭니다’는 생략해도 무방한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가-②)는 ‘(B의 말은)[저쪽에서] 정도전을 말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하는 것하고 다르게 한다’라는 말이다’와 같이 B의 말을 인용, 되풀이하는 대목이 끝날 지점에서 말 겹침이 이뤄져, 문장의 핵심인 인용절은 메시지의 완결성에 훼손을 받지 않았다.

공정1: ③ 임시 책이 아니고 [1 그걸- 1]
 부정2: ④ [1임시 책이죠 1] [2 그건 2]
 공정1: ' [2 아니= 2],
 ' 임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5)는 동일한 말 끼어들기의 예이지만, 현 화자의 전달 메시지에 손상이 있느냐의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메시지의 완결성에 지장이 없는 예는 (5-가)와 같이 잉여적 문장성분, 즉 인용절 서술어에서의 말 끼어들기로, 본고에서는 <표3>에서처럼 인용절, (명사구)서술절, 의문문, 관용구, 부가의문문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현 화자의 메시지 완결성에 지장이 없어서 청자의 말 끼어들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으로 부르고, 이 지점에서의 말 끼어들기 성공 확률을 살펴본다.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은 결국 말 끼어들기 이후 청자가 말차레를 잡고 자신의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대상 자료에서의 말 끼어들기 성공빈도수를 제시한 것으로, ‘/’의 앞은 발생횟수 뒤는 성공 횟수를 기재한 것이다.¹²⁾

<표5> CEDA 토론담화에서의 말 끼어들기 성공 빈도

자료	우호적		비우호적					
	특정 환경		불특정 환경	과실		특정 환경	불특정 환경	
	보충	대답	보충	화자	청자	반박	수정	반박
1. FTA	0/0	0/0	0/0	0/0	0/0	3/3	0/0	5/0
2. 성적장학금	0/0	2/2	1/1	4/4	8/3	14/3	1/1	35/5
3. 정당방위	1/1	1/1	0/0	4/4	0/0	9/9	1/1	3/0
4. 의무휴무제	0/0	0/0	0/0	1/1	3/0	4/4	0/0	7/2
5. CCTV	2/2	2/2	1/1	9/9	11/2	21/20	2/2	22/1
총계	3/3	5/5	2/2	18/18	22/5	51/49	4/4	72/12

개별적으로는 우호적 말 끼어들기(10회, 100%)와 화자의 과실로 인한 비우

12) 앞에서 밝힌 대로 동시시작(답변)은 청자끼리의 말 겹침으로 나타나 현행 화자의 말차레를 자신들이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호적 말 끼어들기(22회, 10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용절, 의문문, 관용구 등 특정 언어적 환경에서의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49회, 96%)가 높게 나타났다.¹³⁾ 가장 성공률이 낮은 지점은 화자의 말차레, 전달 내용 등에 개의치 않고 청자가 끼어들고 싶을 때 그냥 치고 나오는 불특정 지점에서의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12회, 16%)였다.

토론의 참여자들이 말 끼어들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순서교대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 가져오면서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는 이의 전형적 예시인데, 특히 상대의 말차레에 개의치 않고 생각나는 대로 끼어드는 불특정 지점에서의 말 끼어들기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개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잡아나가기려는 공격적 자세를 노출시키는 장면이다.

하지만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 중에서 본고에서 설정한 특정 지점에서의 말 끼어들기는 상대방의 메시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이는 현 화자의 메시지에는 별다른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말 끼어들기여서, 아무 데서나 끼어드는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보다는 성공확률도 높고 순서교대의 가능성마저 높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말 끼어들기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려 한다.

13) 아래와 같이 인용절에서 끼어들었으나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차레를 넘겨주는 경우가 2번 있었다. 이들은 모두 청자가 재확인에 답을 한 뒤 자신의 발언을 이어나가는 순간, 현행 화자에 의해 발언권을 빼앗긴 경우였다.

(1) 부정2: 아,
 ①공공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정1: ② 네, [성적장학금]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2: ③ [네=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부정2의 말에서 인용절의 서술어는 잉여적인지라 공정1의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①)이 된다. 따라서 말 끼어들기를 시도(②)하였으나 부정2의 말 끼어들기(③)로 말차레를 뺏겨 공정1의 말차레 잡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부정2의 발언에 우선권이 있는 교차상호질문시간에 일어난 일이며, 더구나 부정2는 재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므로 공정1의 적극적 대화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1이 말차레를 잡아 자신의 의사를 적극 피력하려는 목적이 다소 약한 상황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통사적 구조에서만 잉여성이 아니라 답변의 필요도에서의 필수/불필요 조건 역시 반영하여 말 끼어들기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문제로 남긴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고는 현 화자의 메시지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진 말 끼어들기 장면에 대한 검토를 하려 하는데, <표3>에서 보듯 특정 언어 사용 환경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3.1.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의 구조적 특징

3.1.1 말의 분절

토론은 상대방과의 입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감도 크기 때문에 말의 흐름이 끊겨 말이 막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말의 분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래의 (10-가)는 말이 틀려서 수정하는 경우이며 (10-나)는 적절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서 분절한 경우이다.

- (10) 가. 긍정1: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① 성적장학금과 지급과 관련지어서 말씀하라고--
 ② 말씀[하시는]--
 부정2: ③ [아=],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쭙보는 겁니다.
 긍정1: 자유와 평등 중예요↖
 나. 부정2: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사랑 살인이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긍정1: ④ 고의성의 그- [뭐=],
 부정2: ⑤ [예]↑,
 그 고의성의 차이죠,

(가)는 ‘성적장학금은 정당한가’의 상호질문의 한 장면을 보인 예로, 부정2의 ‘정당성=평등’ 논리에 대해 긍정1이 답을 하고 있다. (나)는 살인을 과실치사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긍정의 논리에 대해 토론 중인 장면이다. (가)는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면서 높임법이 틀렸다고 판단(①)하여 말의

수정을 위해 분절한 지점(②)에서 말 끼어들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나)는 생각이 나지 않아 적절한 어휘 탐색을 위해 말을 분절한 지점(④)에서 말 끼어들기가 발생한 경우이다. 말의 분절은 화자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말차례 전환의 기회를 준 것으로, 역으로 말하면 청자에게는 적절한 말 끼어들기의 지점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토론은 참여자 모두 말차례를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화, 청자 공유의 쉼(pause)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¹⁴⁾ 대신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거나 부정확한 단어를 수정하려 들 때 잠깐 동안의 탐색 시간이 휴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화의 규칙을 알고 있는 청자로서는 말 끼어들기를 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점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말의 분절을 말 끼어들기의 용이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3.1.2 잉여 서술어-메시지의 완결 지점

토론은 상대방의 논리를 깨기 위해 그가 내세운 논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따라서 상대방이 이전에 말했던 논거를 인용절로 취하여 이를 반박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물론 자신의 주장이 갖는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말했던 논거를 인용, 전체로 내세워야 할 경우에도 인용절이 나타난다.

아래는 (5-가)를 재인용한 것이다.

14) 사적담화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이 웃음이나 잠시 침묵 등으로 말차례 조정의 시간이 나타나곤 한다.

- (1) M: [아니 잠깐--]
 H: 김지용
 J: 서서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
 J: 이 두 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M: [여긴 뭐=]
 M: 네 [네]

- (5) 가. 긍정1: 그것은 뭐,
감수하고 찌른다,
① 이런 고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
부정2: ② [그니까] 미필적 고의
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용구문의 인용동사는 그것이 단지 인용이었음을 표현할 뿐, 앞선 구절에 비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상위절 주어는 주체이고 동사를 포함한 상위문의 서술부는 행위, 내용을 나타내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의 예처럼 인용구문의 핵심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예측 가능한 인용동사, 생략 가능한 서술어 자리에서 말 끼어들기(②)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정연주(2015:87)에서 지적한 대로, 어떤 단어 연쇄 뒤에 어떤 단어가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 즉 화자가 이 전체 단어 연쇄에 대한 덩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서술어 자리가 예측이 될 경우, 서술어는 잉여성을 띠게 된다.15) 잉여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 끼어들기가 가능하다고 토론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청자의 말 끼어들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용이 지점이 된 것이다.

또한 지정사 구문의 ‘이다/아니다’를 서술어로 사용하는 ‘-는 것이다’ 구문 역시 선행 관형절 이후에 말 겹침이 일어났다.

- (11) 부정2: 저희도 알고 있는 판례인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수시로 와서 흥기로 협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칼을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긍정1: [그니까=],

15) 정연주(2015:86-87)는 형식동사 ‘하다’의 자리매우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잉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잉여성을 띠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어휘가 와도 무방한 자리는 유명무실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 숨겨놓은 건데,
이 남자가--,
이 남자는,
저 집으로 폭행을 하러 왔잖아요,

위 예문에서 부정2의 의견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는)아내가 ~칼을 숨겨놓았다’이다. 행위의 주체와 그가 행한 행위를 선행 관형절에서 충분히 표현한 상태이므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는 것이다’는 주 메시지 전달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자로서는 메시지의 완결성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말 끼어들기로 말차례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생략 가능한 잉여적 성분인 ‘-는 것이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말차례 전환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앞선 예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거리를 진술한 뒤에 이를 의문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문사를 넣는 경우, 이때의 서술어 역시 잉여적 성분이 된다.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설명대상이 되는 미지항을 표시하므로, 의문어미가 없어도 의문사로만 의문문을 실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이후에 나오는 서술어는 필수적 성분이 아니며, 이 부분에서의 말 겹침도 현 화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 긍정: 경쟁이 만약에 장학금이 없어서=
그럼 경쟁이 장학금이 없더라도,
경쟁은 계속 생길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1 하신지 1]↗
부정: [1 그래서 1] 그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적 구문의 서술어 역시 일정화된 패턴으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서 서술어 자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이 경우 역시 말 끼어들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13) 가. 부정2: 저희가 언제 타당성을 인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구요].

긍정1: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후미에,
 나. 긍정1: 그럼 명확한 입장을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2: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3-가)의 ‘-는지’는 주로 동사 ‘알다/모르다’와 함께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의미 기능한다. 따라서 ‘-는지’를 듣고 난 후 ‘모르다’는 필수적 메시지에 포함되지 않고 잉여성을 띤다. 마찬가지로 (13-나) 역시 주요 메시지는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 달라’이며 후속되는 ‘-면 된다(감사하다)’는 자신의 명령을 완화시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따라서 ‘-하다’를 듣고 난 후 ‘-면 된다(감사하다)’는 예측가능한 내용, 생략가능한 자리가 되어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이 되는 것이다.

3.1.3 부가의문문-메시지의 완결 지점

부가의문문¹⁶⁾은 ‘A는 B이다’의 문장을 ‘A는 B이지 않아요?’ ‘A는 B가 아니에요?’로 바꾸어 물음으로써, 청자의 동의를 얻으려 함이 목적이다. 그런데 원래 화자의 메시지는 ‘A는 B이다’일 뿐, 뒤의 부정형식인 ‘아니다’는 동의를 받기 위해 덧붙은 말에 불과하다. 토론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질문하여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려 할 때 부가의문문의 사용이 목격되며, 이 지점에서 말 끼어들기가 일어난다.

(14) 가. 긍정1: 그 안내판에--
 .(0.1)
 부정2: 안내[판은--]
 긍정1: [대한] 것은

16) 부가의문문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는 이 용어가 이미 빈번하게 사용되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의문문이라 칭하기로 한다. 더구나 ‘부가’라는 용어가 메시지의 잉여성을 보여주는 데는 적절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① \$\$\$\$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부정2: ② [아뇨]
 정해져 있습니다,
 나. 긍정1: 아마=,
 ③ 이걸 앞으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정2: ④ [그-지금까지]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구에서 그-
 아산시를 예로 들었는데,

(14)는 CCTV 설치의 합법성을 놓고 찬반론을 펼치는 자료로, 긍정 팀은 CCTV의 사용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펴가고 있다. 따라서 부정 팀에서 계속 문제시하고 있는 CCTV의 설명서(안내판)가 존재함을 거듭 확인(①)한다거나 법조항 대로 CCTV를 설치하면 된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③).

그러나 부가의문의 구조적 특징상 뒤에 붙은 ‘-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일 뿐, 긍정1의 의견 자체이지는 않다.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때 끼어드는 부정2는 현 화자인 긍정1의 메시지 완결성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말차레를 잡을 수 있다. 그 결과 부정2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차레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말 끼어들기 예 중에서 화자의 메시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 끼어들기 장면을 모아, 그들의 변별적인 언어사용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1) 화자의 실수로 말이 멈춰지는 지점 (2) 화자가 메시지의 완결성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어서 (3) 청자의 말 끼어들기가 용이한 지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지점에서의 화용적 특징을 살피고, 효과적으로 사용된 언어책략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공정1: [네, 성적장학금]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2: [네=알겠습니다].
 나 공정1: 그러면 방금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경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장학금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
 부정2: [네, 맞습니다].
 그 경쟁이라는 게

(16-가)는 불특정 지점에서의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의 예로, 상대의 말을 긍정하는 ‘네’에 상대방의 의견을 인지하였음을 표하는 서술어 ‘알다’를 붙여 상대방의 발언을 막고 말 끼어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네’의 전략적 쓰임에 더하여 자신이 상대의 의견을 이미 인지하였다는 ‘알겠다’를 사용하여, 더 이상 부정2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발언 차단의 효과적 쓰임이 되었다.

(16-나) 역시 용이 지점에서의 말 끼어들기의 예로, 부정2가 동의의 ‘맞다’를 사용하여 말 끼어들기를 행하는 장면이다. 공정1이 성적장학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학생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정2는 공정1의 말에서 경쟁의 심화만 인정하여 논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1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맞다’를 사용하여 공정1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척 위장하여 자신의 말 끼어들기를 전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처럼 담화표지 연속체의 사용으로 현 화자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경우로는 ‘네 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입니다’¹⁹⁾ 등이

19) ‘네’와 연이어진 언어표현이 끼어들기 당사자의 언어 책략적 사용으로 나타난 예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펼 경우를 포함한다.

(1) 부정1: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본인이-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반증을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정2: [예=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은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네’를 사용하여 말 끼어들기를 이룬 후 상대방의 반

있다. 이들 모두는 청자의 과실²⁰⁾이든 특정 환경 혹은 불특정한 곳에서 끼어들기든지 간에 위치와는 상관없이 모두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에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동의를 표하여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살려주는 담화표지의 사용이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 과정에서 효과적인 언어책략임을 알 수 있다.

3.2.2. 소극적 체면 위협/보호 전략

토론은 서로 간의 입씨름이 비일비재하며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현 화자에게는 위협적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청자 역시도 이를 불손한 행위로 인식할 수 있어, 두 사람 모두의 말이 끊겨 말의 공백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때 말차레를 잡을 사람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혹은 보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먼저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원칙 제시하기’와 ‘재촉하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¹⁾.

론에 동일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이다’를 덧붙여 상대방의 비논리성을 주장하겠다는 공정2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상대방의 논거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비논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지만, 앞서 ‘네’를 사용하여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척 말차레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공정2의 말 끼어들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20) ‘맞다’를 사용한 담화표지 연속체의 예로는 아래처럼 ‘아’와 연이어진 ‘맞다’의 예도 포함된다.

(1) 공정1: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어떻게 자유--]
 부정2: [아, 맞습니다].
 최선을,
 최선을 여쭌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여쭌보는 겁니다,

(1)은 부정2가 성적장학금은 불평등하다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 공정1에게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을 던졌고, 공정1이 이에 대답을 유보하자 공정1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공정1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장면을 담은 예이다.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아’를 사용한 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맞다’를 사용하여 공정1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로, 담화표지 연속체의 사용으로 말 끼어들기의 전략적 성공을 이룬 예이다.
 21) 손을 든다거나 몸을 내미는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행위들이 수반되긴 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기술하였다.

- (17) 가. 부정1: 저희가 언제 타당성을 인정을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구요]
 긍정2: [아까 저희가=],
 말씀 드린--,
 ① 후미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정1: ② [지금 저희가-],
 ③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 긍정1: ④ 그런 사람들은 동의를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정2: ⑤ 사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긍정1: ⑥ [아니-]
 ⑦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동의를 하시면은,
 솔직히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17-가)는 성적장학금은 정당하다를 주제로 교차상호질문을 펼치는 예로, 부정 팀이 질문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 팀 간에 말씨름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서로 말의 분절이 이뤄져 잠시 침묵이 흐를 때(①과 ②), 부정1이 자신의 말차레임을 주장하는, 이른바 원칙 제시하기의 표현을 사용(③)하여 말 끼어들기를 완성시킨 예이다. 상대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해서라도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1이 자신의 말차레임을 주장한 것이다.

(17-나)는 CCTV 중 일부인 수술용 카메라를 놓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긍정 팀의 의견에 답변을 피하는 부정 팀(⑤)의 모습을 보고, 긍정 팀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⑥)하는 예로, 상대방에게 대답을 재촉, 강요함으로써 그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경우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해서라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재촉하기는 1번, 원칙 제시하기 전략은 ‘제가 계속해서 말하겠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깐’ ‘저희 측 상호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며)추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다’ 등 다수 분포하였는데, 이는 주로 아무데서나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불특정지역에서의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에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화행 후 원칙 제시하기’나 ‘의문형의 사용’으로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말 끼어들기에서 사용되었다.

- (18) 가. 부정1: 유통기한의 불확실성이나 카드기 문제,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설문제가--
 편의문제를--]
 긍정1 ①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아까 워낙--]
 ② 저기 죄송하지만,
 우리 차례인 거 아니에요↗
나. 긍정1: 이제 아,
 성적장학금에--
 성적을 최고로 보는 거구요.
 지표 자체가 성적 말고는 다른 게
 [타당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1 [지금--]
 아, 예,
 말씀 다하셨나요↗

(18-가)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보다는 재래시장의 시설 낙후가 더 근본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부정 팀의 말차레에 끼어들어 자신의 말차레를 주장하는 예이며, (18-나)는 성적장학금의 기준으로 성적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긍정 팀의 말에 끼어들어 말차레를 끝낸 것인지 확인받는 예이다. (가)는 말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①), ‘죄송하다 제 차례이다’와 같이 ‘사과하기+원칙 제시하기’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말 끼어들기(②)를 이룬 예이다. 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가진 체면 위협성을 사과화행으로 보상한 경우(22)로,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전략적 쓰임이다.

22) 동시에 대답한 경우 한 쪽에서 사과화행을 한 후 시작하거나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시답변/시작에서 쓰인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특정 환경에서의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의 예에서는 소극적 체면 위협/보호전략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서 따로 넣지 않았다.

(나) 역시 상대방에게 질문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말 차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차례를 확인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전략이 돋보인다. 이들 소극적 체면 위협/보호전략은 동시 시작과 불특정 지점에서의 비우호적 끼어들기 양자에 걸쳐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CEDA 토론담화는 자료의 성격상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를 표명하는 발언이 잦았으며, 이때 서로 간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화 전략적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고에서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주로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인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소극적 체면을 보상하거나 위협하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말

지금까지 CEDA 토론담화를 대상으로 말 끼어들기가 이뤄지는 장면을 모아, 이를 유형화해 보았다. CEDA 토론담화는 서로의 주장이 갖는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논박을 펼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상대방에게 비우호적인 말 끼어들기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수용, 토론 자료 5편을 대상으로 한 말 끼어들기 장면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일치되는 모습(88%의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을 보였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행위일지라도 화자의 말차례를 뺏는다는 의미에서 비우호적일 뿐, 화자의 메시지 완결성에는 해를 끼치지 않아 비우호적이라 부를 수 없는 말 끼어들기가 존재하였다. 본고는 이의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본데, 말 실수와 같이 화자 스스로 말차례를 고집할 수 없다가거나 통사구조상 예측이 가능한 잉여적인 문장 성분이 사용된 곳이었다. 특히 이는 말 끼어들기 이후 청자의 말차례 잡기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확률이 다른 곳보다 높게 나타났다(100~96%). 따라서 본고는 추이적정지점보다 앞서서 말 끼어들기가 이뤄졌지만 화자의 메시지 완결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말 끼어들

기가 용이한 지점으로 이를 선정하였다.

또한 말 끼어들기를 행하는 청자는 자신의 행위가 현행 화자에게 비우호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여 다양한 언어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첫머리에 다양한 담화표지와 담화표지 연속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적극적/소극적 체면을 보호하고 있었다. 다른 곳과 달리 말 끼어들기 용이 지점에서는 담화표지를 두루 사용하거나 적극적 체면보호전략을 주로 구사하는 등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는 CEDA형 토론담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선부른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향후 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각 자료에서 보인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 지점의 언어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말 끼어들기의 다양한 모습을 재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구현정, 전영옥(2005), 『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김규현(2000), “담화와 문법 :대화분석적 시각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7-1, 담화와 인지 언어학회, 155-184.
 김미숙(1995), “대화구조로 본 ‘아니’의 기능”, 『담화와 인지』 제4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71-101.
 김유정, 구수연(2012),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끼어들기와 반응하기 현상 연구”, 『어문논집』 66, 101-139.
 김정선(2012), “아동의 말차례 끼어들기 양상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교육학회, 237-262.
 김혜연(2003), “한국어와 영어 대화상에서의 말차례 뺏냄말의 형태와 기능”, 『담화인지언어학회 17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담화인지언어학회, 89-101.
 나은미(2011), “대학토론교육의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211-269.
 박성현(2007), 『한국어 말차례 체계와 화제』, 태학사.
 박용익(1997), “텔레비전 정치토론회의 대화분석”, 『텍스트언어학』 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39-166.
 박용한(2002), 「과제 중심적 대화에서의 대화전략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진(2003), “토론 담화에서의 말차례 끼어들기와 유지하기 양상”,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19-142.
- 송경숙(1998), “제15대 대통령 후보 초청 TV 합동토론회 분석”, 「사회언어학」 6(1), 한국사회언어학회, 53-87.
- 송경숙(2000), “TV 생방송 토론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8(1), 한국사회언어학회, 223-264.
- 안주호(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61, 언어과학회, 91-116.
- 양영하(2006), 「한국어 대화의 순서교대 양상 연구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2011), “시사토론에서의 말차례 뺏기 발화 양상 -토론자 발화 의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155-178.
- 이원표(1993), “의지감탄사 ‘예, 글썄, 아니’의 담화분석”, 「인문과학」 67-70합집, 인문과학연구소, 139-185.
- 이원표(1999), “토크쇼에서의 말 끼어들기 -담화기능과 사회적 요인”, 「담화와 인지」 제6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3-59.
- 임규홍(2001), “국어 담화의 끼어들기 유형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20, 언어과학회, 321-351.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정명숙(2013), “한국어 대화에서 끼어들기의 결정 요인”, 「우리말연구」 34, 우리말학회, 163-186.
-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기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차지현(2007), 「한국어 대화의 말 끼어들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Bennett, A.(1981), Interrup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Conversation, *Discourse Processes* 4, 171-188.
- Renkema, J.(1992), *Discourse Studies*,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이원표 역(198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Chafe, Wallac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J.(1990), Interrupting the discourse on interruptions, *Journal of Pragmatics* 14, 883-903.
- Levinson, S.(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 권경원 역(1982), 화용론, 한신문화사.]
- Park, Jae-Eun(2010), *Turn-taking organization for Korean conversation: With a conversation analytic proposal for the research and teaching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acks, H. & Schegloff, E. A. & Jefferson, G.(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 696-735.

강소영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실
03760
전화번호: 02-3277-2139
전자우편: sy740@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17. 11. 20.
원고 수정일: 2017. 12. 26.
게재 확정일: 2017. 12. 26.